

'아동 성폭행·살해' 화난 주민들 용의자 화형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된 한 남성이 화가 난 주민들에게 산 채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멕시코 치아파스주 카카호아탄 인근 작은 마을에서 알프레도 로블레로(사진)라는 이름으로 밝혀진 한 남성이 일부 주민에게 붙잡혀 구타당하던 끝에 산 채로 몸에 불이 붙어져 숨졌다.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로블레로는 전날 실종됐다가 다음 날 길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자리드라는 이름의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희생된 아이의 숙모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SNS를 통해 조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주민은 유가족에게 로블레로가 살아서 마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문제의 남성을 몇 시간 만에 찾아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주민이 트위터 등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화가 난 일부 남성이 로블레로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꽂꽂 묶는다. 그런 다음 이들 남성은 괴로워하는 로블레로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주변에서는 일부 남성이 야유를 퍼붓고 휘파람을 분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상에서 급격한 속도로 확산했고,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를 살해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이후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했지만 용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치아파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 "용의자의 죽음에 관련한 사람들을 찾아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오지에서 20여 일 만에 구조된 남성

알래스카의 오지에 홀로 고립됐던 남성이 20여 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2일 CNN에 따르면, 타이슨 스틸(30)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지난달 17일 또는 18일 경,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뛰쳐나와야 했다. 담요나 총, 캔 음식 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가능한 집어 들고 대피했지만, 집은 물론이고, 생후 6년의 반려견마저 화재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도, 지도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그의 오두막은 숲과 강, 호수와 언덕 등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눈을 치울 수 있는 기계도 없었다. 도움을 청할 만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무려 32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인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 볼 수도도록 눈 위에 'SOS' 구조 메시지를 적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눈 덮인 오지에 고립된 지 20여 일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 9일, 드디어 그의 머리 위로 알래스카 주 경찰의 헬리콥터가 날아들었다.

한 구조대원은 "이 남성의 지인으로부터 '친구가 수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을 돌던 중, 하얀 눈 위에 적힌 'SOS' 세 글자와 손을 흔들고 있는 조난자를 발견했다."면서 "그의 외모는 흡사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나오는 톰 행크스 같았다."고 당시를 묘사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남성은 "휴대전화와 지도가 모두 불탄 상황에서 강을 건널까 생각도 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이 있어 빠질 위험이 컸다. 설블리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면서 "희망은 오로지 누군가가 항공구조대에 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해주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 희망 하나로 눈더미에 굴을 파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가지고 나온 캔 음식 중 딱딱한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구조된 직후 경찰서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한 뒤, 경찰에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이 거주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했으며, 알래스카의 외딴곳에 홀로 지내게 된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다.

변기 속에 맹독성 거대 '코브라'가

지난달 29일 태국의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불임을 보려는 순간 변기 속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는 막대기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킹코브라였다. 다행히 불임을 보기 전에 발견해 큰 화를 면한 그는 긴급 구조대를 불렀다. 구조대는 약 5분 만에 뱀 전용 집게로 킹코브라를 제압해 밧줄로 머리를 묶어 포획했다. 꺼낸 코브라는 길이가 긴 맹독성 코브라로 알려졌다. 맹독성 코브라에 물리면 치사율이 75%에 달한다.

에서 갑자기 코브라가 떨어진 적도 있다.

태국에서는 화장실 변기에서 코브라가 종종 발견된다. 지난 2017년에는 태국의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변기를 보던 중 코브라에 중요 부위를 물려 실신한 바 있다. 이는 코브라가 이동하거나 알을 낳을 장소로 하수관을 종종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태국에서는 매년 7천여 명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 이중 30여 명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침대 밑에서 코브라가 발견되기도 하고, 부엌 천장

한편 포획된 킹코브라는 이후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